

# “4차혁명 진행시 제조업 일자리 사라질 듯”

세계경제연구원, UC버클리대 국제경제라운드테이블·맥킨지앤컴퍼니와 ‘한국경제의 미래’ 국제회의 개최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하면 기존의 제조업 일자리가 대부분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칼 베네딕트 프레이 옥스퍼드대학교 교수는 28일 “앞으로 4차혁명이 진행되면 탈산업주의로 인해 기존 제조업 일자리가 다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프레이 교수는 이날 세계경제연구원 UC버클리대 국제경제라운드테이블·맥킨지앤컴퍼니와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제4차 산업혁명과 한국경제의 미래’ 국제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 내 현존하는 일자리 중 47%가 사라질 것이라는 그의 연구 결과는 올해 미국 대통령 경제보고서에 인용된 바 있다.

그는 컴퓨터 기술이 일자리에 미친 영향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올 노동 환경의 변화를 예측했다.

프레이 교수에 따르면 컴퓨터가 도입되면서 고소득·고숙련 일자리는 늘었지만 중소득·저숙련 일자리는 줄었다. 그 결과 민간 부문의 노동 참여율은 2000년대초에 정점을 찍고 떨어져 왔으며 향후 10년간 하락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그는 “중소득 일자리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통해서 대체 가능하다”며 “컴퓨터화가 일어나면서 고숙련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커졌다”고 분석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컴퓨터 서비스를 소비하기 위해 저임금 노동직이 늘었다고 했다.

그는 “고임금과 저임금 일자리는 늘



32형 삼성 세리프 TV 레드 출시

삼성전자가 세리프 TV 레드 컬러 모델을 출시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레드 컬러의 세리프TV는 유럽에서만 24형 모델로 판매되던 색상으로 이번에 국내에서는 32형 모델로 출시했다. 기존 40형과 32형의 ‘화이트’, ‘다크 블루’ 컬러에 32형 ‘레드’ 컬러가 추가됐다.

어나고 중간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일자리가 줄었다”며 “특히 제조업의 자동화가 이뤄지며 제조업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관측했다.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비일상적이고 반복적이지 않은 영역에도 자동화가 도입된 상황이다.

그는 “금융권에서는 의사결정도 빅데이터 기술로 이뤄지면서 로보어드바이저 같은 기술도 도입됐다”고 말했다. 로보어드바이저란 로봇과 조인자(어드바이저)의 합성으로 자동화된 자산관리 프로그램이다.

다만 창의력과 인지능력은 인간이 앞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기계도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지만 로봇이 모차르트처럼 위대한 작곡을 하리란 보장은 없기 때문에 창의력은 인간이 우위”라고 짚었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그는 모든 일자리가 다 자동화될 것은 아니지만, 자동화의 범위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아울러 기술 발전이 불러온 지역 간 격차에 대해 우려했다.

맥킨지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제조업의 상징인 디트로이트와 소프트웨어

업의 중심인 실리콘밸리의 일자리 양상은 차이가 있다.

그는 “지역 간 기술 혁명의 도입 양상이 굉장히 다르다”며 “새로운 일자리와 혁신적인 시설 그리고 인재들은 도시로 가기 때문에 도시는 기술진보가 빠르지만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현존하는 미국 일자리의 71%가 2000년대에 새로 생겼다”며 “그만큼 새로 생긴 일자리에 사람이 몰린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뉴스

## 기본형 적격대출 비중 ‘경충’

금리인상 불안감에 석달만 20% 상승

조만간 대출금리가 상승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며 최근 기본형 적격대출 판매 비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8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적격대출 유형 중 기본형 판매액은 2조9000억원으로 금리조정형을 포함한 전체 비중의 49.1%를 차지했다.

이는 전분기 기본형 비중이 30.1%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20%나 급증한 것이다.

정책금융상품인 적격대출을 특수성을 띤 ‘채무조정형’을 제외하면 금리조정형과 기본형으로 나뉜다.

금리조정형은 5년 주기로 금리가 변동되고, 기본형은 10년 이상 고정금리·분할상환하는 것이 차이다. 최근 초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며 금리조정형 판매 실적이 두드러졌다. 지난 19일 기준 연간 판매 누적액은 금리조정형이 9조7000억원으로 기본형 6조7000억원보다 3조원이나 많다.

하지만 최근에는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 연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까지 가계대출 조이기

에 나서자 대출 수요자들은 향후 금리가 오를일 밖에 남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1조4000억

원, 2조2000억원 팔린 기본형은 3분기에 판매액이 2조9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금리조정형 판매액은 1분기 1조6000억원에서 2분기 5조1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가 3분기에 3조원으로 다시 줄었다.

주금공 관계자는 “대출금리가 사실상 바닥을 친 상황에서 추가 금리인하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고객들의 판단인 것 같다”며 “금리조정형은 5년 주기로 금리가 변동되는 만큼 대출자들은 현재의 저금리를 장기간 유지하기 위해 기본형 쪽을 더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추세는 주금공의 금리조정형 공급 중단 결정과도 관련이 있다.

주금공은 적격대출 판매 금융사와 협의해 지난 1일부터 금리조정형 판매를 끊고 기본형만 취급을 하고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미국 금리인상 우려 등으로 금리변동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함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기본형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며 “향후 실제 대출 금리가 오를 경우 금리조정형 차주의 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기본형만 공급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1조4000억

원, 2분기에 2분기에 각각 1조4000억

원, 2분기에 2분기에 각각 1조4000억

원, 2분기에 2분기에 각각 1조4000억

## 현대모비스, 친환경 핵심기술로 글로벌시장 공략 ‘박차’

현대모비스가 친환경차 핵심부품 기술 확보에 전력을 쏟으면서 글로벌 시장 공략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8일 현대모비스는 2020년까지 현대·기아차의 친환경차 라인업 26차종 확대 전략에 발맞춰 ‘다차종 동시 대응 체계’ 마련에 적극 돌입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하이브리드 10차종, 전기차 6차종,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8차종과 수소연료전지차 2차종에 대한 친환경 핵심부품에 대한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완비 품질의 양산 체계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제품개발 생산 발전단계는 크게 소량생산-본격양산-생산다변화 3단계로 나뉜다. 지난 2000년부터 10년간 아반떼 하이브리드, 포르테 하이브리드 차종 등에 친환경차 핵심부품을 소량 생산했던 현대모비스가 지난해까지

쏘울 전기차, 투싼 수소연료전지차에 이르는 친환경차를 양산한 뒤 본격 3단계 수준으로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대모비스는 올해부터 독자 개발체제 구축도 강화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금까지 현대·기아차와 공동으로 친환경차 연구개발을 진행했지만, 올해 현대차 ‘아이오닉’과 기

아차 ‘니로’ 출시를 기점으로 독자 개발체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 진출을 본격 준비한다는 포부다.

현대모비스는 친환경차 설계역량을 강화하며 현대·기아차의 친환경차 설계 참여율을 높이고 있다.

2011년 30% 수준이었던 현대모비스의 친환경차 설계 참여율이 최근 ‘아이오닉’과 ‘니로’ 차종에서는 60%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그 결과 아이오닉과 니로에는 현대모비스의 핵심 친환경차 부품이 다수 적용됐다. 27kW급 구동모터는 특수 코

일인 ‘평각권선 타입’ 코일이 적용됐는데, 코일 집적도를 높여 출력을 효율화하는 동시에 경량화·소형화를 이룬다. 기존에 트렁크에 위치했던 고정압배터리는 ‘시트 프레임 일체형’ 구조로 개선했다. 후방 시트 하방에 탑재하도록 설계해 공간 활용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아이오닉은 트렁크 적재공간은 664l를 확보했다.

한편 현대모비스는 친환경자동차 핵심부품 전용공장인 충주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33만평 부지에 연산 32만대의 모터라인과 35만대의 전력제어 기어라인을 구축, 구동모터와 하이브리드 전력제어기, 배터리시스템, 수소연료전지차용 발전기 등을 생산하고 있다.

뉴스

뉴스

뉴스

뉴스

## 갤럭시7 신규 보상 프로그램 시작

11월 30일까지 가입시 갤럭시 S7 시리즈 잔여 할부금 면제

지난 28일부터 전국 이동통신대리점에서 갤럭시노트7 교환 신규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3사는 삼성전자 협의에 따라 갤럭시노트7 고객이 갤럭시S7 시리즈의 1년치 잔여 할부금을 면제해준다. 이 신규 프로그램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갤럭시노트7 고객은 단말을 지참하고 최초 구매매장으로 직접 방문해 해당 프로그램 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이동통신3사는 아직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지 않은 갤럭시노트7 고객에게 문자 메시지 등으로 신규 교환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있다.

이같은 교육지책은 갤럭시노트7 회수율이 10%대에 머물며 저조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갤럭시노트7 고객들은 단말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갤럭시노트7 대체 모델이 마땅치 않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한편 삼성전자는 국가기술표준원의 갤럭시노트7 회수율 향상 권고에 따라 오는 29일 배터리 충전량을 60% 미만으로 떨어뜨리기로 했다.

뉴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